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기동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에 대한 애착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그것이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비록 남녀의 연령에 따른 변화패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남녀 모두 연령증가와 함께 부모에 대한 애착은 감소하고 친구에 대한 애착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동시에 애착인물에 대한 애착정도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차이나는 영향을 미쳤으며 부와 모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 친구에 대해서도 높은 애착을 갖고 더 높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지니고 있었다. 부와 모에 대한 애착이 모두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친구보다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그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부와 모에 대한 애착정도가 불일치할 때는 친구에 대한 애착이 부모애착의 불일치효과를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결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핵심어: 애착 · 자아존중감 · 자기효능감

지금까지 청년기에 관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나 자율성의 획득, 분리 혹은 개별화 차원에서 주로 연구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청년기의 애착관계와 이 시기의 특징적 발달이나 적응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Paterson 등, 1994, 1995; McCormick & Kennedy, 1994; Raja, McGee & Stanton, 1992; Rice, 1990).

애착에 관한 초기연구들(Ainsworth 등, 1978; Ainsworth, 1973; Bronson, 1973)이 애착을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이원적 관계에 한정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근의 연구들은 발달의 전생애적 관점에서 영아기나 아동기 이후의 애착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청년기의 애착관계

애착이란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애정적 유대관계로서 Bowlby(1969)에 의해 제안된 개념이다. 애착은 인간 영아는 물론 영장류의 새끼 동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영아의 애착은 부모의 보호를 불러일으켜 영아를 생존할 수 있게 하므로 애착은 진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Bowlby는 제안하였다. 특히 애착발달에 대한 규범적 설명을 제시하고 애착본질에서의 개인차를 규명한 Ainsworth와 그 동료들(1978)은 생후 첫 1년동안 영아의 신호와 요구에 대한 어머니의 접근가능성과 반응성이 애착형성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Bowlby(1973)의 모델에 의하면, 양육자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은 신뢰할 수 있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타인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 확신을 가지며 자신은 타인으로 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형성한다. 이러한 영아들은 성장하면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타인으로 부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지닐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이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적 특성이 발달의 이후 단계에서 관계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Bowlby(1969)가 제안한 내적 작동모델(working model)의 개념에 기초한다. Bowlby에 의하면, 영아는 양육자의 접근가능성과 반응성에 대해 내적으로 표상된 기대세트를 형성하며 이 조직화된 기대가 내적 작동모델로 기능한다. 즉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이른 애착관계는 자아와 세계에 대한 중요한 신념을 형성하고 그것은 이후의 관계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Ainsworth 등(1978)이 분류한 3가지 애착유형-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한/양가적-에 의해 질적으로 상이한 내적 작동모델이 형성될 것이고 그것은 자기와 타인을 기대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내적 작동모델의 발달적 계속성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Sroufe(1983)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이 또래들 사이에서 더 유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후속연구들은 안정되게 애착된 아동들은 불안정하게 애착된 아동들보다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으며(Cassidy, 1988) 정서적 지원을 얻기 위해 교사들에게 더 적게 의존한다고 밝혔다(Hartup, 1989). 한편 Main과 그 동료들(1985)은 Ainsworth의 애착분류와 대단히 유사한 애착패턴을 성인 피험자들에게서 발견하였다. 따라서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패턴은 시간경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며 세대간에 걸쳐 그것의 영향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청년기동안 개인의 애착관계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시기는 Bos(1967)의 주장대로 부모로부터 분리되고 개별화하는 시기이며 동년배들의 영향이 중요시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애착이나 애착관계는 지속적이며 상황적 여건과 독립적이라는 Bowlby(1969)의 주장을 따른다면, 애착관계에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년기의 부모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의 상대적 중요성을 연구한 결과들은 일관성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Bos의 주장과 일치되게 청년기의 시작과 함께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커지고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약화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Steinberg와 Silverberg(1986)는 청년기동안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의 애착대상은 부모에서 동년배로 이동하므로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약화된다고 제안하였다. 더욱이 청년초기 부터 중기(Papimi 등, 1990) 그리고 후기까지 (Hunter & Youniss, 1982) 부모에 대한 자기노출은 감소하고 친구에 대한 자기노출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둘째, 부모에 대한 애착유대가 청년기에도 그대로 지속된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다. Bretherton(1985)과 Weiss(1982)는 비록 아동기와 같은 눈에 보이는 애착행동은 감소하지만 애착의 인지적-정서적 차원들이 청년기에도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Greenberg 등(1983)과 Ryan과 Lynch(1989)는 청년초기부터 후기까지 부

모나 친구의 활용에서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청년기를 통하여 부모에 대한 긍정적 애정이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Armsden과 Greenberg(1987)는 부모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대학생들이 동년배에 대해서도 높은 애착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제안하였고 Raja 등(1992)은 청년초기동안 부모에 대한 애착이 계속해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동년배에 대해서도 높은 애착을 보인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동년배 애착보다는 부모 애착이 청년기동안의 안정감을 위한 더 강력한 예언자이긴 하지만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부모에 대한 애착과 역상관의 관계에 있지도 않고 관련이 없지도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청소년들은 부모와 동년배로부터 질적으로 상이한 측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그리고 연령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 및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차이가 있다고 밝히는 연구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한데 묶어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뉴질랜드 청소년(13-19세)들을 대상으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와의 애착관계를 연구한 Paterson 등(1994)은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청소년들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즉, 연령증가와 함께 남녀 모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안정되게 유지되었으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약화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동년배에 대한 애착보다는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또한 여성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친구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고 이와같은 결과는 Lapsley 등(1990)에 의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Paterson 등의 연구는 청년초기부터 후기까지 애착관계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부모에 대한 애착이 친구에 대한 애착보다 더 높은 긍정적인 정서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aterson 등의 연구와는 상이하게 청년기 동안 우정이 더 중요해진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Buhrmester & Furman, 1987; Youniss &

Smollar, 1985) 청년후기에 이르러 부모에 대한 애정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으며 (Kenny, 1987; Sullivan & Sullivan, 1980) 반대로 청년후기에 이르러 우정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어 (Sharabany 등, 1981) 청년기동안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동년배에 대한 애착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동년배에 대해 더 높은 애착점수를 나타낸다는 연구들이 있기도 하고 (Paterson 등, 1994; Raja 등, 1992) 우정발달에서 성차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들도 있어(Greenberg 등, 1983; Wiebe & Williams, 1972) 부모 및 동년배 애착관계의 상대적 중요성은 물론 우정에 대한 성별, 연령별 차이에 대해 일관성있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전통적 애착이론에 의하면,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개인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낯선 상황에서 안전기지(secure base)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육자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들은 능동적으로 환경을 탐색하고 적응할 수 있다(Bowlby, 1982; Sroufe, 1979). 그러므로 안정된 애착은 미래의 새롭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적응적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Sroufe & Waters, 1977).

애착과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이와같은 이론적 가정을 바탕으로 청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적응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개발한 자기보고식의 애착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한 Greenberg 등(1983)은 부모에 대한 정서의 질이 높을수록(더 큰 안정감을 가질수록) 더 높은 자아존중감 및 인생만족점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고등학교시기에도 부모는 대단히 중요한 양육과 조언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동

안에도 여전히 동년배에 대한 애착보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후속연구에서도 Armsden과 Greenberg(1987)는 동년배에 대한 애착보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인생만족 등과 높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부모에 대한 애착은 대학연령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Richman과 Flaherty(1987)는 의과대학으로 이동하는 성인초기 대학원생들의 표본에서(평균 23.6세) 부모와의 건강한 애착관계는 더 낮은 수준의 우울 및 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McCormick과 Kennedy(1994)도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질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높은 상관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청년기의 애착을 연구한 28개의 논문을 개관한 Rice(1990)는 애착과 사회적 능력, 자아존중감, 정체감 그리고 정서적 적응 사이에 일관성 있는 긍정적 상관을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그들 사이의 관련성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나 대학 1학년에서는 가장 낮았고, 대학 3,4학년들은 보통 정도의 상관을 그리고 성인 초기의 표본들에서는 다시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착과 적응 사이의 상관은 중요한 발달적 변화(대학입학, 대학졸업 등)와 함께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Rice는 애착은 남성과 여성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적응과 관련되어 있으나 여성들의 상관정도가 남성들의 그것보다 유의하게 더 크다고 밝혔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계는 연령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부모의 성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예로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질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질보다 자아존중감의 더 강력한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Hoffman 등, 1988; Burke & Weir, 1978),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다(LeCroy, 1988; Gecas &

Schwalbe, 1986). 특히 Armsden(1986)과 Cubis 등(1989)은 아버지 지원의 영향은 남성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질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어(Paterson, Pryor & Field, 1995; Ryan & Lynch, 1989; Greenberg 등, 1983) 현재로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 수 없는 형편에 있다. Paterson 등(1995)은 남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강도에 의해 차이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연령과도 상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Rice의 통합분석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동시에 동년배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치된 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Greenberg 등(1983)은 친구활용의 빈도와 친구에 대한 정서의 질이 자아존중감이나 인생만족점수와 높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Paterson 등(1995)은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을 제외하고는 동년배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다른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Armsden(1986)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동년배에 대한 애착의 영향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대조적으로 Armsden과 Greenberg(1987)는 부모에 대해 긍정적이고 애정적 애착을 갖는 대학생들이 동년배와도 긍정적인 애정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Raja 등(1992)도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고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경우에 반사회적 행동이나 우울증의 증후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청소년 자신이 갖는 힘에 대한 지각은 부모애착과 동년배애착 양자와 관련되어 있어 부모와 동년배 양자와의 만족스러운 관계가 청년기의 자아존중감이나 정체감의 발달에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애착과 직업탐색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연구한 Ryan 등(1996)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직업탐색 자기효능감의 유의한 변량을 설명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자기효능감(자기효율성)이란 새롭게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판

단으로 후속되는 수행과 높은 상관을 갖는 개인의 특성이다(장휘숙, 1993, 1995). Bowlby(1982)에 의하면, 격려적이고 지원적이며 협조적인 어머니에 대한 경험은 환경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능력감을 증진시키므로 양육자에 대한 애착정도와 개인의 자기효능감 사이에 유의한 상관을 기대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대한 이상의 개관을 바탕으로 청년기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에 대한 애착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세 사람의 애착인물에 대한 애착정도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상이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동시에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차이나는 애착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물론 청년기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청년초기, 중기, 그리고 후기동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에 대한 애착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시기의 개인들은 어머니와 아버지, 친구 중 누구에게 가장 강한 애착을 형성하는가?
2. 애착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정도를 상하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4개의 집단은 친구에 대한 애착,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동시에 부모에 대한 낮은 애착이 친구에 대한 높은 애착에 의해 보상될 수 있는가도 함께 검토한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대전시에 소재한 남녀공학 중학교의 2학년 남녀학생들과 남녀공학 고등학교의 2학년 남녀학생들 및 C 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남녀학생들이 연

구대상자로 표집되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을 누락한 학생과 부적절하게 응답한 학생 및 부모가 모두 배제하거나 편부 혹은 편모의 자녀들을 제외한 최종 연구대상자들은 전체 799명(남: 394, 여: 405)이었고 그 중 중학생은 249명(남: 119, 여: 130), 고등학생은 293명(남: 145, 여: 148) 그리고 대학생은 257명(남: 130, 여: 127)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은 12세부터 28세까지 분포하였으며 중학교 학생들의 평균연령 13.62(SD=0.84)세, 고등학교 학생들은 16.51(SD=0.51)세 그리고 대학생들은 20.46(SD=2.33)세 었다.

2. 척도

1) 어머니, 아버지 및 동년배 애착

부와 모 양자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부모 문항 28개와 동년배 문항 25개로 구성된 IPPA는 자기보고질문지로서 Bowlby가 제안한 애착인물에 대한 정서의 질적 특성이나 차이에 기초하여 제작되었으며 유의미한 애착인물에 대해 청소년들이 느끼는 안정성의 수준을 평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원래의 IPPA 문항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에 대한 애착과 동년배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Paterson 등(1994)과 같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해 각 25문항씩 동일한 내용을 질문하고 5점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원래의 IPPA는 소외, 의사소통, 신뢰의 세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인분석결과 요인들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하위척도를 무시하고 전체점수를 계산하였다.

IPPA는 3주 간격의 높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지니고 있으며 유의한 수렴타당도를 나타내었다(Armsden과 Greenberg, 1987). Paterson 등(1994, 1995)의 연구에 나타난 어머니 애착의 알

파괴수는 .94, 아버지 애착의 알파계수는 .94 그리고 동년배 애착의 알파계수는 .48이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세 사람의 애착인물에 대한 알파계수는 각각 .91, .92 그리고 .90이었다.

2) 자아존중감 검사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검사가 사용되었다.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이 검사는 전체적 자아존중감의 지표로 사용된다. 이 검사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에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의 알파계수는 .89였다.

3) 자기효능감 검사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Sherer와 그 동료들(1982)의 자기효능감 검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23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검사는 17개 문항의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 하위척도와 6개 문항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두 가지 하위 점수로 계산할 수도 있고 전체점수로 합산될 수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전체점수를 계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두 가지 하위척도 점수 각각을 사용하여 다른 점수들과 비교하였다.

이 검사는 원래 Likert형의 14점 척도였으나 Sherer와 Adams(1983)에 의해 5점 척도로 사용되었고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는 7점척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에게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의 7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하여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학구적/직업적 하위척도의 알파계수는 .88이었고 사회적 하위척도의 알파계수는 .71이었다.

3.조사절차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자료는 1997년 3월 24일부

터 29일까지 그리고 대학생들의 자료는 4월 7일부터 12일까지 수집되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발달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들이 자율 학습시간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대학생들은 심리학개론의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당교수에 의해 실시되었다. 검사실사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약 30-40분 그리고 대학생들은 약 20-30분을 필요로 하였다.

결과 및 해석

1.성과 연령에 따른 어머니, 아버지 및 친구에 대한 애착

청년기동안 어머니, 아버지, 및 친구에 대한 애착이 연령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으며 3인의 애착인물 중 누구에 대한 애착이 가장 강한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애착인물 각각에 대한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1 연령과 성에 따른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의 평균과 표준편차

		중	고	대
남	어머니 애착 M	88.88	83.73	85.76
	SD	17.00	14.70	11.13
	아버지 애착 M	84.50	77.32	79.11
	SD	16.93	13.52	13.34
	친구 애착 M	82.58	80.16	88.31
	SD	15.51	12.10	9.78
여	어머니 애착 M	91.33	90.07	87.25
	SD	19.06	14.72	13.18
	아버지 애착 M	81.46	80.22	75.00
	SD	18.57	15.57	12.67
	친구 애착 M	88.71	84.83	86.39
	SD	15.76	12.40	10.54

<표1>에 제시된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를 연령과 성에 따라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 연령과 성에 따른 어머니 애착점수에 대한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값
연령	2	1974.269	987.134	4.31
성	1	2307.322	2307.322	10.06**
연령*성	2	910.370	455.185	1.99
오차	787	180444.784	229.281	
전체	792	185871.626		

*, $p < .05$, **, $p < .01$, ***, $p < .001$ 이하 동일함

어머니 애착점수에 대한 2원 변량분석은 <표2>와 같이 연령과 성의 유의한 주효과를 나타내었다. 사후검정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학생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보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애착점수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를 연령과 성에 따라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3>과 같다.

표3 연령과 성에 따른 아버지 애착점수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값
연령	2	4682.535	2341.267	10.12***
성	1	398.223	398.223	1.72
연령*성	2	1976.704	988.352	4.27*
오차	790	182814.328	231.410	
전체	795	189612.636		

<표3>에 의하면, 연령의 주효과와 연령과 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보다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애착점수를 나타내었다.

성의 주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령과 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여 사후검정으로 단순 주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1>과 같이 남학생들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는 중학생,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는데 반하여 여학생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순으로 점수가 높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청년기 남성들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고등학교 시기동안 급격히 낮아지고 대학 시기에서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반면, 청년기 여자들은 중학교에서 가장 높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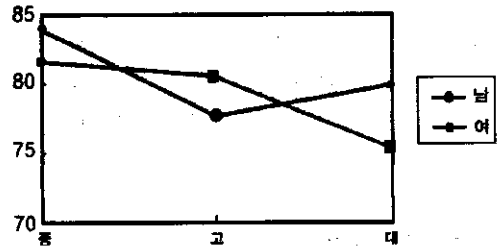


그림1 아버지 애착에 대한 연령과 상호작용효과

<표1>의 친구에 대한 애착점수를 연령과 성에 따라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4>와 같다.

표4 연령과 성에 따른 친구 애착점수에 대한 분석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값
연령	2	3357.223	1678.611	10.20***
성	1	1739.259	1739.259	10.56***
연령*성	2	2368.504	1184.252	7.19***
오차	793	130567.812	164.650	
전체	798	138115.188		

변량분석 결과, <표4>와 같이 연령과 성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두 요인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다. Bonferroni 검증결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그리고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애착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여학생들이 대학연령을 제외하고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애착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그림2>와 같이 남학생들의 친구에 대한 애착은 대학생에서 가장 높고 고등학교에서 가장 낮은 반면, 여학생들은 중학생에서 가장 높고 고등학생에서 가장 낮

아 연령과 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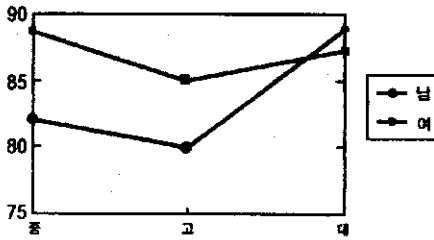


그림2 친구애착에 대한 연령과 성의 상호작용효과

비록 횡단연구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남녀 학생들의 3인의 애착인물에 대한 연령별 애착점수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3> 및 <그림4>와 같다. 남녀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는 남자 대학생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고,대학 연령 모두에서 일관성있게 아버지와 친구에 대한 애착점수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는 남자 중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에서 친구의 애착점수보다 더 낮았으며 남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친구에 대한 애착점수가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보다 더 높기까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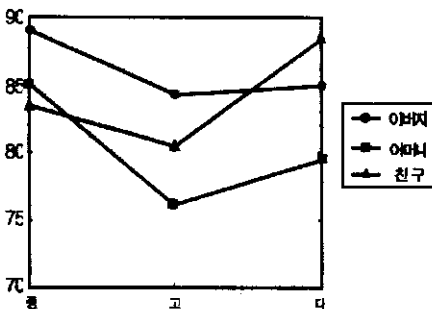


그림3 남학생의 연령별 애착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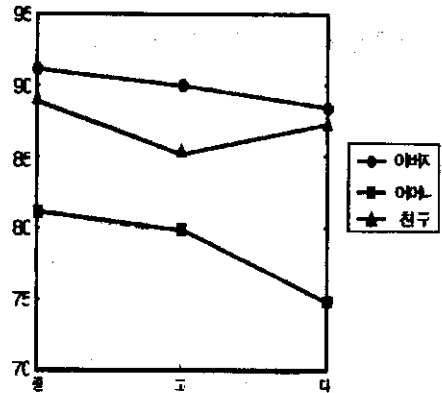


그림4 여학생의 연령별 애착점수

2.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정도가 자아존중감,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각 독립변인들의 조합들이 어떤 구조를 보일 때 가장 높은 R^2 값을 갖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5>, <표6> 그리고 <표7>은 자아존중감,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3가지 독립변인들의 연령별 효과를 제시해준다.

표5 자아존중에 대한 연령별 모델검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서 R2 C(p)	순서 R2 C(p)	순서 R2 C(p)
1 0.130 18.914 어머니	1 0.068 10.427 아버지	1 0.103 26.896 아버지
1 0.128 19.498 아버지	1 0.050 16.030 친구	1 0.100 27.678 친구
1 0.085 32.393 친구	1 0.048 16.749 어머니	1 0.044 45.289 어머니
2 0.168 9.425 어머니 친구	2 0.094 4.329 아버지 친구	2 0.185 3.264 아버지 친구
2 0.166 9.895 아버지 어머니	2 0.081 8.485 아버지 어머니	2 0.125 21.964 어머니 친구
2 0.164 10.670 아버지 친구	2 0.078 9.417 어머니 친구	2 0.114 25.361 아버지 어머니
3 0.193 4.000 어머니 아버지 친구	3 0.102 4.000 어머니 아버지 친구	3 0.189 4.000 어머니 아버지 친구

표6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령별 모델검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서 R2 C(p)	순서 R2 C(p)	순서 R2 C(p)
1 0.111 9.767 아버지	1 0.0941 7.104 친구	1 0.110 23.808 친구
1 0.091 15.674 어머니	1 0.0434 23.331 어머니	1 0.083 32.212 아버지
1 0.056 25.533 친구	1 0.0391 24.699 아버지	1 0.056 40.724 어머니
2 0.131 6.091 아버지 어머니	2 0.1110 3.671 어머니 친구	2 0.176 5.214 아버지 친구
2 0.131 6.206 아버지 친구	2 0.1085 4.494 아버지 친구	2 0.143 15.527 어머니 친구
2 0.115 10.743 어머니 친구	2 0.0566 21.092 아버지 어머니	2 0.105 27.505 아버지 어머니
3 0.146 4.000 어머니 아버지 친구	3 0.1163 4.000 어머니 아버지 친구	3 0.187 4.000 어머니 아버지 친구

표7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령별 모델검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서 R2 C(p)	순서 R2 C(p)	순서 R2 C(p)
1 0.136 5.622 친구	1 0.153 1.010 친구	1 0.144 1.004 친구
1 0.053 29.321 아버지	1 0.020 45.372 아버지	1 0.009 41.275 아버지
1 0.049 30.729 어머니	1 0.008 49.628 어머니	1 0.009 41.316 어머니
2 0.151 3.256 아버지 친구	2 0.154 2.457 아버지 친구	2 0.148 2.034 아버지 친구
2 0.150 3.539 어머니 친구	2 0.153 2.917 어머니 친구	2 0.145 2.749 어머니 친구
2 0.066 27.691 아버지 어머니	2 0.021 47.132 아버지 어머니	2 0.013 41.971 아버지 어머니
3 0.156 4.000 어머니 아버지 친구	3 0.156 4.000 어머니 아버지 친구	3 0.148 4.000 어머니 아버지 친구

<표5>에 나타난 설명량(R^2)과 $C(p)$ 를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은 중학교 연령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친구의 변인들이 조합을 이룰 때, 고등학교 연령에서는 아버지, 친구의 변인들이 조합을 이룰 때, 그리고

대학교 연령에서는 중학교 연령과 동일하게 어머니, 아버지, 친구의 변인들이 조합을 이룰 때 가장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친구보다는 부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표8 자아존중감에 대한 성별 모델검증

남				녀			
순서	R ²	C(p)	변인	순서	R ²	C(p)	변인
1	0.084	19.132	어머니	1	0.130	42.084	친구
1	0.061	29.092	아버지	1	0.128	43.171	아버지
1	0.055	31.693	친구	1	0.083	66.119	어머니
2	0.120	5.456	어머니 친구	2	0.210	3.922	아버지 친구
2	0.100	14.081	아버지 어머니	2	0.165	26.705	어머니 친구
2	0.093	17.366	아버지 친구	2	0.144	37.188	아버지 어머니
3	0.128	4.000	어머니 아버지 친구	3	0.214	4.000	어머니 아버지 친구

표9 학구적/ 직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성별 모델검증

남				녀			
순서	R ²	C(p)	변인	순서	R ²	C(p)	변인
1	0.075	16.301	친구	1	0.117	38.042	친구
1	0.053	26.066	어머니	1	0.113	39.997	아버지
1	0.040	31.327	아버지	1	0.086	53.229	어머니
2	0.109	3.410	어머니 친구	2	0.187	5.533	아버지 친구
2	0.093	10.522	아버지 친구	2	0.156	20.804	어머니 친구
2	0.064	23.173	아버지 어머니	2	0.134	31.541	아버지 어머니
3	0.113	4.000	어머니 아버지 친구	3	0.194	4.000	어머니 아버지 친구

표10 사회적 자기효율성에 대한 성별모델 검증

남				녀			
순서	R ²	C(p)	변인	순서	R ²	C(p)	변인
1	0.126	3.673	친구	1	0.152	4.101	친구
1	0.027	47.762	아버지	1	0.032	61.010	아버지
1	0.019	51.122	어머니	1	0.024	65.156	어머니
2	0.133	2.792	어머니 친구	2	0.161	2.039	아버지 친구
2	0.132	3.253	아버지 친구	2	0.153	5.526	어머니 친구
2	0.032	47.494	아버지 어머니	2	0.038	60.369	아버지 어머니
3	0.135	4.000	어머니 아버지 친구	3	0.161	4.000	어머니 아버지 친구

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표6>에 의하면,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은 중학교 연령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친구의 변인들이 그리고 대학교 연령에서는 어머니, 친구의 변인들이 조합을 이룰 때 가장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구의 영향이 커지는 하지만 여전히 부모가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표7> 참조) 중학교 연령에서는 친구와 아버지 변인조합이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연령에서는 친구 변인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부모보다는 친구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표8>, <표9> 그리고 <표10>은 자아존중감,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각 독립변인들의 성별효과를 제시해준다.

<표8>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각 독립변인들의 조합 중 R^2 이 최대가 되는 변인들의 조합을 살펴보면, 청년기 남성의 자아존중감은 가장 높은 설명력(R^2)과 낮은 C(p)값을 갖는 어머니와 친구의 변인조합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고 여성의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와 친구의 변인조합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됨으로써 청년기동안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반대성의 부모와 친구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표9>와 <표10>의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도 설명력과 C(p)값을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과 동일하게, 청년기 남성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친구의 변인조합에 의해 그리고 청년기 여성의 경우는 아버지와 친구의 변인조합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도 반대성의 부모와 친구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3. 어머니와 아버지 에 대한 애착의 상하집단과 친구 에 대한 애착,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어머니와 아버지 에 대한 애착점수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하여 상하로 나누어 어머니 상과 아버지 상집단, 어머니 상과 아버지 하집단, 어머니 하와 아버지 상집단 그리고 어머니 하와 아버지 하집단의 4개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친구애착, 자아존중감,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11>과 같다.

표11 부모에 대한 애착의 상하집단에 따른 자아존중감,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F값
		어머니 (상) 아버지 (상)	어머니 (상) 아버지 (하)	어머니 (하) 아버지 (상)	어머니 (하) 아버지 (하)	
친구애착	M	88.11	86.15	85.52	81.00	18.85
	SD	12.87	12.90	12.53	12.96	***
자아존중감	M	2.90	2.69	2.70	2.56	22.92
	SD	0.47	0.51	0.48	0.48	***
학구적/ 직업적 자기효능감	M	4.84	4.54	4.63	4.25	17.75
	SD	0.98	0.94	0.92	0.87	***
사회적 자기효능감	M	4.75	4.63	4.64	4.37	5.25
	SD	1.15	1.22	1.01	1.09	**

네 가지 종속변인 모두가 유의한 집단차이를 나타내어 사후검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하였다. 친구에 대한 애착은 1집단과 4집단, 2집단과 4집단 그리고 3집단과 4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 양자에 대한 애착이 모두 높은 집단의 친구애착 점수가 가장 높고 부모 양자에 대한 애착이 모두 낮은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기는 하였지만 부모 양자에 대한 애착이 모두 높은 집단과 부모 중 어느 한쪽에 대한 애착만 높은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부모 어느 한쪽에 대한 높은 애착만으로 친구에 대한 애착을 높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후검증에서는 1집단과 2집단, 1집단과 3집단, 1집단과 4집단 그리고 3집단과 4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모두 높은 집단이 가장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었고 그 다음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으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높은 집단이었으며 부모 양편에 대한 애착이 모두 낮은 집단은 가장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집단2와 집단4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높으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낮은 경우에는 자아존중감 점수를 높이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후검증은 1집단과 2집단, 1집단과 4집단, 2집단과 4집단 그리고 3집단과 4집단 사이에 유의한 집단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모두 높은 집단이 가장 높은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을 지니고 있고 부모 양편에 대한 애착이 모두 낮은 집단은 가장 낮은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부모 어느 한편에 대한 애착이 높거나 낮은 집단 중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높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은 집단이 그 반대의 집단보다 더 높은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을 갖는 경향은 있었으나 유의한 집단 차이는 없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후검증에서는 1집단과 4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모두 높은 집단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부모 양자에 대한 애착이 모두 낮은 집단이 가장 낮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집단과 2집단 그리고 1집단과 3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고 2집단과 3집단, 3집단과 4집단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어 부모 양 어느 한편에 대한 높은 애착은 사회적 자기효능감 점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청년기동안 높은 친구애착, 자아존중감,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자에 대한 높은 애착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부모 양 어느 한편에 대해서만 높은 애착을 가질 때 어떤 차이냐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 분석만으로는 알기 어려워 부모 양자에 대한 애착이 모두 높거나 모두 낮아 애착정도가 일치하면서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거나 낮은 조건에 할당되는 연구대상자들과 부모 양에 대한 애착이 높거나 낮아서도 불일치하면서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거나 낮은 조건에 할당되는 연구대상자들을 가지고 후속분석을 실시하였다. <표12>는 부모 양에 대한 애착정도가 일치하면서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거나 낮은 조건에 할당되는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변량분석의 결과이다.

표12 부모에 대한 동일수준의 애착과 친구애착의 상하조건에 따른 차이검증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F값
		부모 (상) 친구 (상)	부모 (상) 친구 (하)	부모 (하) 친구 (상)	부모 (하) 친구 (하)	
자아존중감	M	3.00	2.74	2.61	2.52	31.66 ***
	SE	0.41	0.51	0.49	0.47	
학구적/ 직업적 자기효능감	M	5.03	4.51	4.43	4.14	27.07 ***
	SE	0.94	0.96	0.81	0.89	
사회적 자기효능감	M	4.97	4.37	4.72	4.15	17.17 ***
	SE	1.11	1.12	1.07	1.05	

변량분석결과, <표12>와 같이 세 가지 종속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집단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증(Bonferroni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에서는 1집단과 2집단, 1집단과 3집단, 1집단과 4집단 그리고 2집단과 4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청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와 아버지 및 친구에 대한 애착이 모두 높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부모 양에 대한 애착이 높고 친구에 대한 애착이 낮은 집단이었으며 부모 양 그리고 친구에 대한 애착이 모두 낮은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부와 모에 대한 예측정도가 일치할 때, 청년기 동안의 자아존중감은 친구보다는 부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도 자아존중감과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어 1집단과 2집단, 1집단과 3집단, 1집단과 4집단 그리고 2집단과 4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부와 모 그리고 친구에 대한 예측이 모두 높은 집단의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고 세 사람의 예측인물에 대한 예측이 모두 낮은 집단이 가장 낮았다. 그러므로 부와 모에 대한 예측정도가 일치할 때, 자아존중감과 동일하게 친구보다는 부모에 대한 예측이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에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1집단과 2집단, 1집단과 4집단 그리고 3집단과 4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3인의 예측인물에 대한 예측이 모두 높은 집단이 가장 높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지니고 있었고 3인의 예측인물에 대한 예측이 모두 낮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지니고 있었

낮아 예측정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표13>과 같이 상이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표13>의 변량분석결과에 따라 사후검증(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즉 1집단과 4집단, 2집단과 3집단 그리고 3집단과 4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예측이 높거나 낮아 불일치할 때는 친구에 대한 예측이 높은 집단이 유의하게 더 높은 자아존중감과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청년기동안 친구에 대한 높은 예측은 부와 모에 대한 예측의 불일치 효과를 보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중,고,대학연령의 남녀 학생들을 횡단적으로 표집하여 청년기동안 어머니, 아버지 및 친구에 대한 예측정도가 연령과 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동시에 어머니, 아버지, 친구, 3인의 예측인물에 대한 예측정도가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도 함께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예측대상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함으로써 예측인물의 변화여부가 청년기동안의 개인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연구결과, 청년 초기부터 후기까지 비록 남녀의 예측패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예측은 감소하고 친구에 대한 예측은 증가하며 이 효과는 청년기 개인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에 대한 예측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했을 때 연령차와 성차가 나타났다. 어머니에 대한 예측점수는 남자 대학생을 제외하고 전 연령에서 일관성있게 가장 높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대한 예측은 어머니에 대한 예측은 물론

표13 부모에 대한 예측불일치와 친구 예측의 상하조건에 따른 차이검증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F값
		어머니상 아버지하 친구 상	어머니상 아버지하 친구 하	어머니하 아버지상 친구 상	어머니하 아버지상 친구 하	
자아존중감	M	2.76	2.60	2.80	2.58	3.47
	SI	0.53	0.47	0.51	0.42	
학구적/ 직업적 자기효능감	M	4.70	4.34	4.94	4.25	8.86 ***
	SI	0.98	0.84	0.91	0.77	
사회적 자기효능감	M	4.97	4.23	4.92	4.28	9.54 ***
	SI	1.13	1.20	1.08	0.79	

다. 그러나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의 집단차이는 친구에 대한 예측의 상하에 따라 유의한 집단차이를 나타냄으로써 부와 모에 대한 예측보다 친구에 대한 예측이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더 중요하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부와 모 어느 한쪽에 대한 예측이 높거나

친구에 대한 애착점수보다 전 연령에서 일관성있게 낮아,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약화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동년배에 대한 애착보다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선행연구(Paterson 등, 1994)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한 낮은 애착점수는 한국의 아버지들이 아직도 전형적인 남성 성역할인 생계유지자의 역할을 담당할 뿐 자녀들에게 자상하고 지원적인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들은 여전히 가족내의 권위인물로서 자녀들과는 심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였다.

동시에 청년기 남자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는 중학연령에서 가장 높고 고등학교 연령에서 낮아지며 대학연령에서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나 대학연령에서도 중학교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못하여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청년기 여자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점수는 남자들과는 상이하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연령까지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청년기 남녀의 친구에 대한 애착점수는 고등학교 연령에서 낮아지나 대학연령에서 다시 회복되는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었고 남자 대학생들의 친구에 대한 애착점수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보다 더 높아지기까지 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Paterson 등(1994)의 주장대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친구에 대한 애착보다 일관성있게 높게 유지되지도 않았고 Ryan & Lynch(1989) 혹은 Greenberg 등(1983)의 결과처럼 청년초기부터 후기까지 부모나 친구의 활용에서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오히려 청년기의 시작과 함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약화되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커진다는 Blos(1967)나 Steinberg & Silverberg (1986)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할 뿐 아니라 청년기 후기에 이르러 우정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Sharabany 등(1981)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비록 횡단연구의 결과이긴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써 청년기는 애착대상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

고 친구에 대한 애착이 부모에 대한 애착보다 점진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여학생들은 몇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남학생들보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그들의 성역할 사회화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여학생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연령에서 남학생들보다 친구에 대한 더 높은 애착점수를 나타내어 여학생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친구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유지한다는 Lapsley 등(1990)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청년기동안의 바람직한 적응을 위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Richman과 Flaherty, 1987; Armsden과 Greenberg, 1987; Greenberg 등, 1983)과 일치되게 친구보다 부모의 영향이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도 친구보다는 부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는 부모보다 친구의 영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중요하다는 Paterson 등(1995)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개인들은 그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년배 집단에게 더 많이 의존하나 도덕적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여전히 부모나 주위 성인들에게 더 많이 의존한다는 연구결과들(Niles, 1981; Young & Ferguson, 1979)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성차를 고려할 때는 청년기 남녀의 자아존중감과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일관성있게 반대성의 부모와 친구변인의 조합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청년기동안 개인의 자아존중감이나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 혹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남성의 경우에는 반대

성인 어머니와 친구의 조합에 의해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반대성인 아버지와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Paterson 등(1994, 199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관계의 강도에 의해 청소년들은 상이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본 연구는 오히려 Freud의 주장과 일치되게 부모-자녀 간에도 이성관계의 효과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공한 여성의 뒤에는 훌륭한 아버지가 있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각각 상하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 양자에게 높은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 친구애착과 자아존중감,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 일관성있게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높은 애착을 갖는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애착점수를 그리고 부모 양자에 대한 애착점수가 모두 낮을 때는 가장 낮은 점수를 얻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정도가 유사한 방식으로 청년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 친구에 대해서도 높은 애착을 갖는다는 것이다. Armsden과 Greenberg(1987)는 대학연령에서 그리고 Raja 등(1992)은 청년초기동안 부모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 친구에 대해서도 높은 애착을 갖는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어머니, 아버지, 친구 3인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아존중감,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고 친구에 대한 애착이 낮은 집단은 부모 양자에 대한 애착은 낮고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은 집단보다 더 높은 자아존중감과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을 나타내었으나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청년기동안 부모보다 친구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

다.

또 다른 중요한 결과로서 부모와 어느 한쪽에 대한 애착이 높거나 낮아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은 집단이 유의하게 더 높은 자아존중감,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지니고 있어 친구에 대한 애착이 부모에 대한 애착의 불일치효과를 보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 양자에 대한 애착정도가 모두 낮고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경우에 반사회적 행동이나 우울증의 증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Raja 등, 1992)도 있어 이 분야의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청년기동안 애착대상인물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가 요구되는데 불구하고 이 연구는 횡단 연구라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부모에 대한 현재의 애착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와 친구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였을 뿐 그들의 인생 초기에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의 계속성 여부를 고려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애착역사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동시에 이 연구에서는 애착점수를 상하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뿐 초기 애착연구자들이 분류한 애착의 질적 차원을 포함하지 못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질문지인 IPPA보다 Hazan과 Shaver(1987)가 제시한 분류방식을 따라 연구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영아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의 질적 특성이 내적 작동모델을 통하여 청년기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이 분야의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애착이 청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의 발달을 애착대상의 변화와 그것의 영향 차원에서 연구한다면, 청소년들의 병리적 발달은 물론 이 시기에 관한 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장휘숙(1993). 자기효율성의 특성에 관한 관련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 6권 제 2호.
- 장휘숙(1995). 일반적 자기효율성과 특정한 과제에 대한 자기효율성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 8권 제 1호.
- Ainsworth, M. D., Blehar, M. I.,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Lawrence Erlbaum, Hillsdale, NJ.
- Armsden, G. C. (1986).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in late adolescence: Relationships to affective status, self-esteem and coping with loss, threat and challeng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1986.) *Dissert. Abstracts Int.* 47(4-B), 1751-1752.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 Youth Adolesc.* 16, 427-453.
- Blos, P. (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Psychoanal. Study Child*, 162-186.
- Bowlby, J. (1969). Attachment (Vol. 1). Basic Books, New York.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ume 2, Separation, Basic Books, New York.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2nd ed.). Basic Books, New York.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Monogr. Soc. Res. Child Develop.* 50, 3-35.
- Bronson, G. W. (1973). Infants' reactions to an unfamiliar person. L. J. Stone, H. T. Smith, and L. B. Murphy(Eds.). *The Competent Infant*. New York: Basic Books.
- Buhrmester, D.,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 58, 1101-1113.
- Burke, R. J., & Weir, T. (1978). Benefits to adolescents of informal helping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and peers. *Psychol. Rep.* 42, 1175-1184.
- Cassidy, J. (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 Year olds. *Child Develop.* 59, 121-134.
- Cubis, J., Lewin, T., & Dawes, F. (1989). Australian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Austra. NZ J. Psychiat.* 23, 35-47.
-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ur and adolescent self esteem. *J Marriage Family* 48, 37-46.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 Youth Adolesc.* 12, 373-386.
- Hartup, W. H. (1989). Social relation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Am. Psychol.* 44: 120-126.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 J. Person. Social Psychol.* 52, 511-524.
- Hoffman, M. A., Ushpiz, V., & Levy-Shiff, R. (1988). Social support and self esteem in adolescence. *J Youth Adolesc.* 17, 307-316.
- Hunter, F. T., & Youniss, J. (1982). Changes in functions of three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Develop. Psychol.* 18, 806-811.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 year college students. *J. Youth Adolesc.* 16, 17-27.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 (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 Counsel. Develop.* 68, 561-565.
- LeCroy, C. (1988). Parent-adolescence intimacy: Impact on adolescent functioning. *Adolescence* 23, 137-147.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Bretherton, I., and Waters, E.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 Youth Adolesc.* 23, 1-18.
- Niles, F. S. (1981). The Youth culture controversy: An evaluation.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3), 265-271.
- Papini, D. R., Farmer, F. F., Clark, S. M., Micka, J. C., & Barnett, J. K. (1990). Early adolescent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patterns of emotional disclosure to parents and friends. *Adolescence*, 15, 959-1001.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 Youth Adolesc.* 23, 579-600.
- Paterson, J., Pryor, J., & Field, J. (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 Youth Adolesc.* 24, 365-376.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 Youth Adolesc.* 21, 471-485.
- Rice, K. G. (1990). Attachment in adolescence: A 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 *J. Youth Adolesc.* 19, 511-53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 Ryan, R. M., & Lynch, J. H. (1989). Emotional autonomy versus detachment: Revisit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 60, 340-356.
- Sharabany, R., Gershoni, R., & Hoffman, J. E. (1981). Girlfriend, boyfriend: Age and sex differences in intimate friendship. *Develop. Psychol.* 17, 800-808.

- Sherer, M. & Adams, C. H.(1983). Construct validation of the self-efficac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53, 899-902.
- Sherer, M. &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 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roufe, L. A., & Waters, E. (1977).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Child Develop.* 48, 1184-1199.
- Sroufe, L. A., Fox, N. E., & Pancake, V. R. (1983). Attachment and dependency in develop mental perspective. *Child Develop.* 54, 1615- 1627.
- Steinberg, L., & Silverberg, S. B.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 57, 841-851.
- Sullivan, K., and Sullivan, A. (1980). Adolescent-parent separation. *Develop. Psychol.* 16, 93-104.
- Waters, E., Wippman, J., & Sroufe, L. A. (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ce in the peer group: Two studies in construct validity. *Child Develop.* 50, 821-829.
- Weiss, R. S. (1982). Attachment in adult life. In Parkes, C. M., and Stevenson-Hinde, J. (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ur*. Basic Books, New York.
- Wiebe, B., & Williams, J. D. (1972). Self disclosure to parents high school seniors. *Psychol. Rep.* 31, 690.
- Young, J. W., & Ferguson, L. R. (1979) Developmental changes throrgh adolescence in the spontaneous nomination of reference groups as a function of decision cont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 239-252.
- Youniss, J., & Smollar, J. (1985). *Adolescent s' Relationship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인간발달연구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997. Vol 4. No 1.

The Attachment,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Adolescence

Hwee 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ng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and its influence 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With increasing age, subjects decrease their attachment to mothers and fathers and increase to friends. Over all, females get higher level of attachment to three figures than males regardless of grades. Adolescents with high attachment to their parents have higher friend attachment, self-esteem and self-efficacy than their counterpart.

Key words: attachment·self-esteem·self-efficacy